



‘풍운아’ 김진우 3년만에 KIA 복귀

“마지막 기회, 꼭 재기하겠다”

내일부터 팀 훈련 ... 임의 탈퇴 신분은 유지

‘풍운아’ 김진우가 31일부터 KIA타이거즈 팀 훈련에 합류한다. 잦은 팀 이탈로 임의탈퇴 신분인 김진우에게 재기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 KIA 타이거즈는 29일 투수 김진우에게 재기의 길을 열어주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팀 훈련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의탈퇴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김진우는 28일 오후 조범현 감독과 면담을 하고 팀 훈련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이에 따라 31일 3군에 합류하고, 내달 1일 서울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매디컬 테스트를 받은 후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3년 만의 팀 합류다. 김진우는 잦은 이탈로 물의를 빚은 끝에 지난 2007년 8월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이후 김진우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몸 상태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불발에 그쳤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훈련을 하면서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중도에 다시 팀을 이탈하는 등 복귀 과정에서 수차례 차질을 겪기 구단으로부터 신의를 잃기도 했다. 그러다 KIA의 협조로 지난 4월 일본프로야구 독립리그에서 발족한

한국인 팀 ‘코리아 해치’로 진출했지만 팀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6월 광주로 돌아왔다. 이후 문화수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복귀를 준비했다. 김진우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무엇보다 신뢰회복이 재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는 30일 선수단과 만나 팀 합류에 따른 각오를 밝혔다. 두장 김상훈은 “김진우의 복귀 문제를 두고 선수단과 얘기를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같이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진우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회를 주신데 감사 드린다”며 “마지막으로 알고 구단이나 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 당시 신인 최고 계약금인 7억원을 받고 KIA에 입단한 김진우는 데뷔 첫해 150km 넘는 강속구와 나자 큰 커브를 앞세워 12승(11패)을 올리며 탈삼진왕(177개)에 오르는 등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며 차츰 각광 구단으로부터 신의를 잃기도 했다. 김진우는 2003년과 2006년 각각 11승과 10승을 거뒀지만 폭행 사건, 무절제한



사생활, 팀 무단이탈 등으로 ‘문제아’로 낙인 찍혀 결국 팀을 떠났다. 프로 7년간 성적은 47승34패2도루, 평균 자책점은 3.66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구례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여자천하장사 씨름대회.

구례서 ‘모래판 여왕’ 가린다

여자천하장사 씨름대회 ... 내달 3일부터 사흘간

‘제2회 전국 여자천하장사 씨름대회’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구례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전국 시·도 대표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첫날과 이튿날 매화(60kg이하), 난초(65kg이하), 국화(70kg이하), 대나무(75kg이하), 무궁화(80kg이하) 등 5개급 장사전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엔 통합장사인 천하장사 경기가 펼쳐진다. 대회에는 시·도 예선을 거친 전국 각지의

고수들이 출전한다. 지난 해 첫 대회 천하장사이자 국화급 단골 우승자인 임수정(부산) 씨를 비롯해, 임해미(충북), 공혜선(부산), 박미경(경기), 송송화(경남)씨 등이 강력한 우승후보다. 겁없는 신예들도 대거 출전한다. 올해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1위에 올랐던 서현(구례) 장사전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엔 통합장사인 천하장사 경기가 펼쳐진다. 대회에는 시·도 예선을 거친 전국 각지의

통합장사인 천하장사에는 황소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0만원이, 각 체급별 장사에게는 황소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000만원이 걸려있다. 여자 씨름은 보는 재미가 남자 씨름과 다르다. 살바싸움이나 신경전이 거의 없고 아가지기 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술씨름이 여우러져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MBC ESPN에서 3일 개회식과 함께 매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주요 경기를 생중계 한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호랑이 4위 커닝 5위도 위태

넥센에 2대 3패 ... 6위 LG와 1.5게임차

호랑이들의 5위 자리도 위태롭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즌 18차전에서 타선의 침묵속에 2-3으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5위 KIA와 7위 넥센과의 상대전적은 8승10패가 됐다. KIA는 승수를 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다시 한 번 패배를 기록하면서 4강 싸움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물론 5위 수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27일 1위 SK를 상대로 귀중한 1승을 더했던 KIA는 승리 잇기에 실패하면서 29일 우천으로 경기를 쉬 6위 LG와의 격차가 1.5게임까지 줄었다. KIA가 먼저 최희섭의 희생타로 1회 선취

점을 만들었지만 3회초 선발 콜론이 강구태·김일경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하며 위기에 몰렸다. 불넷까지 더해져 1사 만루, 윤한준의 내야 땅볼로 첫 실점을 한 콜론이 송지만에게 1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으면서 1-2 역전을 허용했다. 4회 초순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해결사’의 한방이 터졌다. 4회말 1사에서 5번 김상현이 넥센 선발 김성태의 커브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동점 홈런을 만들었다. 하지만 5회와 7회 김상현과 신종길의 2루타로 만든 득점 기회에서 후속타가 불발되면서 경기의 흐름이 넥센으로 기울었다. 8회 콜론이 이어 마운드를 넘겨받은 이상화가 첫 타자를 삼진으로 요리했지만 좌전

안타와 불넷으로 1사 1·2루의 위기에 몰렸다. 유동훈으로 투수가 교체됐지만 유한준의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넥센이 2-3 재역전에 성공했다. 8회말 우익수 플라리로 물러나가는 했지만 이용규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선두타자로 나온 이용규가 넥센 두 번째 투수 박준수를 상대로 20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이며 한 타자 최다투구 신기록을 만들었다. 앞선 기록은 2007년 6월7일 잠실전에서 당시 우리 투수 장원삼과 두산 타자 정원석 사이에서 나온 17구다. 이용규가 끈질기 승부조 넥센 마운드를 괴롭혔지만 이어 타석에 들어선 김선빈과 나지완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KIA는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서석초에 야구용품 전달

달성한 서석초에 3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양운회 감독이 이끄는 서석초는 지난 24일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된 2010 스포츠토배 청소년야구대회와 지난 14일 끝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김초호 단장(왼쪽)은 29일 넥센과의 경기에 앞서 최근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한 서석초에 3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양운회 감독이 이끄는 서석초는 지난 24일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된 2010 스포츠토배 청소년야구대회와 지난 14일 끝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남대 복싱 최강

전국총별대회 금은 2

호남대가 아마 복싱 최강자에 등극했다. 호남대가 지난 26일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끝난 제31회 회장배 전국 종합아마추어복싱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대학부 종합 1위에 올랐다.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 대회에서 플라잉급 고기창과 헤비급 박영안이 금메달을, 슈퍼헤비급 김진성 은메달 그리고 라이트급 이금 김혁과 웰터급 김락균이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anhwan' (산행안내) featuring a map, travel tip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aewon Travel Agency.